

광주FC, 네덜란드 국대 출신 센터백 티모 영입

188cm 장신 공중볼 장악·1대1 대인방어 강점... 빌드업 능력도 탁월
산드로·아론·아사니·토마스 등 2023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 마무리

프로축구 광주FC가 네덜란드 철벽 수비수 티모를 영입하면서 2023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광주는 2일 수비진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빅리그에서 맹활약한 수비수 티모(29·Timo Letschert)를 영입했다.

티모는 188cm·84kg의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워 공중볼 장악과 1대1 대인방어에 강점을 보인다. 안정적인 볼처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 티모는 정확한 킥으로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는 등 빌드업 능력도 탁월하다.

티모는 네덜란드의 명문 클럽 아약스의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성장해 2012-2013시즌 FC호로닝언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예와 이탈리아(사수올로, 세리에A), 독일(함부르크SV, 분데스리가2)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을 펼쳤다.

2014-2015시즌 FC위트레흐트에 합류한 티모는 현재 세계적인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장인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지도 아래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팀의 주전으로 KNVB컵 준우승을 이끌었으며, 2016 위트레흐트 올해의 선수상도 받았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16년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도 소집되는 등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AZ알크마르(네덜란드 에레디비지예)와 링비 BK(덴마크 1부)를 거쳐 광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티모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K리그에 대해서 알게 됐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며 "광주가 1부리그에서 단단히, 꾸준히 버틸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티모의 영입과 함께 올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시즌 후반기 광주의 질주를 이끌었던 브라질 출신 공격수 산드로(32·Sandro cesar cordovil),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호주 출신의 중앙 수비수 아론 로버트 칼버(26·Aaron robert calver)가 올 시즌에도 공·수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알바니아 출신의 '특급 왕어' 아사니(27·Jasir Asani), '브라질 피니셔' 토마스(29·Thomas Jaguaribe Bedinelli)에 이어 네덜란드 출신의 티모까지 영입하면서, 광주는 막강 외국인 부대를 구성해 1부리그 도전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에 합류한 네덜란드 대표팀 출신의 티모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손흥민이 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022-2023시즌 EPL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벗어던진 손흥민 ... 팀 패배는 못 막아

토트넘, 빌라에 0-2 완패



손흥민(31)이 새해 첫날 안면 보호 마스크를 벗어 던졌지만, 소속 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는 공식전 10경기 연속 선제 실점을 기록한 끝에 완패했다.

토트넘은 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022-2023시즌 EPL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0-2로 졌다.

지난해 11월 2일 마르세유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에서 안와 골 절상을 당해 2022 카타르 월드컵 4경기와 소속팀 복귀전인 직전 브렌트퍼드와 경기에서 줄곧 검은 색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타임을 뒀던 손흥민은 이날 처음으로 마스크 없이 경기를 뛰었다.

손흥민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다. 전반 19분에 이를 벗어던졌다. 이후 계속 맨얼굴로 풀타임을 뛰었다.

시야가 넓어진 손흥민은 연계 플레이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헤더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EPL 3골 2도움, UCL 2골 등 공식전 5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시즌 중반부터 수비가 부쩍 불안해진 모습을 보이는 토트넘은 정규리그 7경기, 공식전 10경기 연속으로 선제 실점했다.

또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정규리그에서 7경기 연속으로 2실점 했다.

토트넘은 5위(승점 30·9승 3무 5패), 애스턴 빌라는 12위(6승 3무 8패)에 자리했다.

토트넘은 손흥민, 해리 케인을 제외한 주요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전열에서 대거 이탈하는 악재 속에 애스턴 빌라를 상대했다.

히사롤리송, 루카스 모라에 이어 이날 경기를 앞두고 데얀 쿨루세브스키도 근육을 다쳐 선발 명단에서 빠졌다.

신에 브리안 힐이 정규리그에 선발로 데뷔하며 손흥민-케인 콤비와 3-4-3 전열의 '공격 삼각편대'를 구성했다.

고전하던 토트넘은 전반 37분 벤 데이비스가 열로카드를 받아, 스리백 전원이 경고를 1회씩 안고 상대 공격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토트넘은 전반 막판 힘들게 득점 기회를 만들었으나 골로 마무리 짓지는 못했다.

전반 40분 이반 페리시치가 후반에서 한 번에 넘겨준 공을 잡아 골 지역 오른쪽으로 파고든 뒤 울린 크로스를 케인이 헤더로 연결했으나 슈팅이 상대 수비에 막히고 말았다.

결국 선제골은 애스턴 빌라의 차지였다.

후반 5분 더글라스 루이스가 날린 중거리 슈팅이 토트넘 골키퍼 위고 요리스에게 막히자 튀어나온 공을 잡은 올리 왓킨슨이 왼쪽에서 컷백으로 연결했다. 이를 에밀리아노 부엔디아가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의 동점골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후반 12분 페리시치가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 한 번 트래핑한 뒤 날린 원발 슈팅과 23분 손흥민의 헤더 패스에 이은 케인의 하프볼 슈팅이 모두 골대를 외면했다.

선제골의 시발점이 된 루이스가 후반 28분 애스턴 빌라의 승리에 썩기를 박는 골을 책임졌다.

존 맥킨이 토트넘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찰러 주자 기민하게 달려든 루이스가 문전에서 슈팅해 2-0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강민수, 전남드래곤즈 복귀 ... "팀 승격에 최선"

186cm 장신 베테랑 센터백

베테랑 중앙수비수 강민수(37)가 전남드래곤즈로 복귀했다.

전남이 지난 시즌 인천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강민수를 FA로 영입했다. 2005년 전남에서 프로에 데뷔해 2007년까지 활약했던 베테랑 수비수의 귀환이다.

강민수는 고양종합고를 졸업하고 2005년 전남에 입단했다. 2007년까지 3시즌 동안 전남 소속으로 59경기에 나와 1득점을 기록했다.

강민수는 이후 전북, 제주, 수원, 울산, 상주, 부산, 인천 등을 거치며 통산 456경기에 출전해 15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으로 선발돼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등 A매치 53경기에 출전, 1득점을 기록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활약했다.

강민수는 186cm 장신으로 공중볼 경합과 대인방어에 강점이 있다. K리그 베테랑 중앙수비수답게 그라운드 안팎에서 선수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다.

강민수는 "다시 전남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기쁘고 기대된다. 전남에서 프로 선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며 "좋은 기회를 주셔서 흔쾌히 결정하게 됐다. 승격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전남드래곤즈와 FA계약을 맺은 강민수가 광양전용구장에서 유니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것이 중요하다. 팀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전남을 떠날 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컸다. 다시 돌아온 만큼 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복귀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성재, 올해 PGA투어 메이저 우승 가능성 크다

미국 골프채널 전망

임성재(25)가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골프채널의 전망이 나왔다.

골프채널은 2일(한국시간)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주목할 선수를 꼽았는데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선수 3명 가운데 임성재를 포함했다.

이 매체는 임성재가 특히 지난해 마스터스에서 좋은 경기를 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골프 선수 가운데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시즌 그는 샷으로 얻는 타수 6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일깨운 골프채널은 임성재가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할 한국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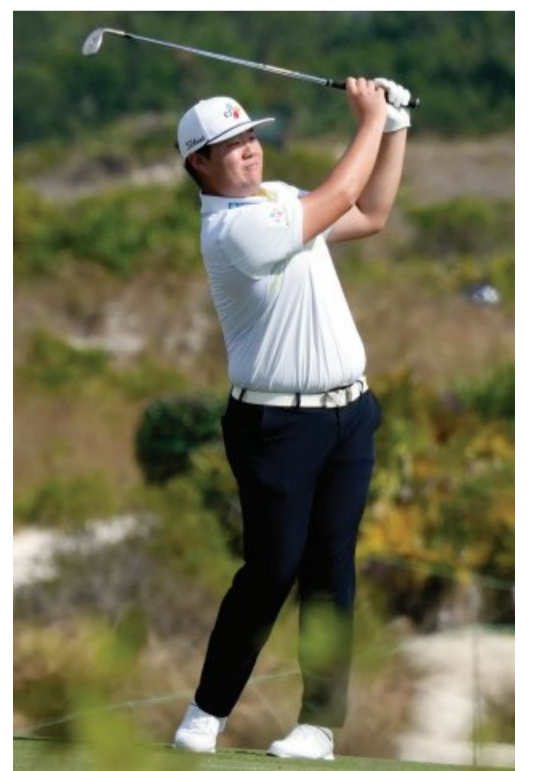
이 매체는 또 김주형(20)도 메이저 대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선수로 꼽았다.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과 윌 찰러토리스(미국)도 임성재와 함께 올해 메이저 대회 우승 가능성이 큰 선수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세계랭킹 10위 호블란은 PGA투어에서 3차례 우승했고, 지난달 타이거 우즈 재단 주최 히어로 월드 챌린지 2연패를 달성했다.

신인왕 출신 찰러토리스는 메이저 대회에서 3차례 준우승했다.

골프채널은 올해 첫 우승을 따낼 것으로 보이는



임성재

기대주로는 테일러 몽고메리, 데이비스 라일리, 사이스 시갈라(이상 미국) 등 3명을 추천했다.

/연합뉴스